

요코하마시 어린이 빈곤 대책 관련 계획 (요약본)

2016 년도~2020 년도

목 차

● 제 1 장 총칙	P1
● 제 2 장 요코하마시 어린이 빈곤 실태	P2
● 제 3 장 어린이 빈곤 대책 관련 조치의 시점	P4
● 제 4 장 요코하마시의 어린이 빈곤 대책	P6
● 제 5 장 어린이 빈곤 대책 관련 조치	P8
● 제 6 장 계획의 추진	P14

어린이 빈곤 대책이란

국가는 2014 년 1 월에 <<어린이 빈곤 대책을 추진할데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며, 2014 년 8 월에 <<어린이 빈곤 대책 강령>>을 제정했다. <<어린이 빈곤 대책 강령>>의 취지는 어린이 빈곤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린이의 미래가 출생과 성장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빈곤 어린이한테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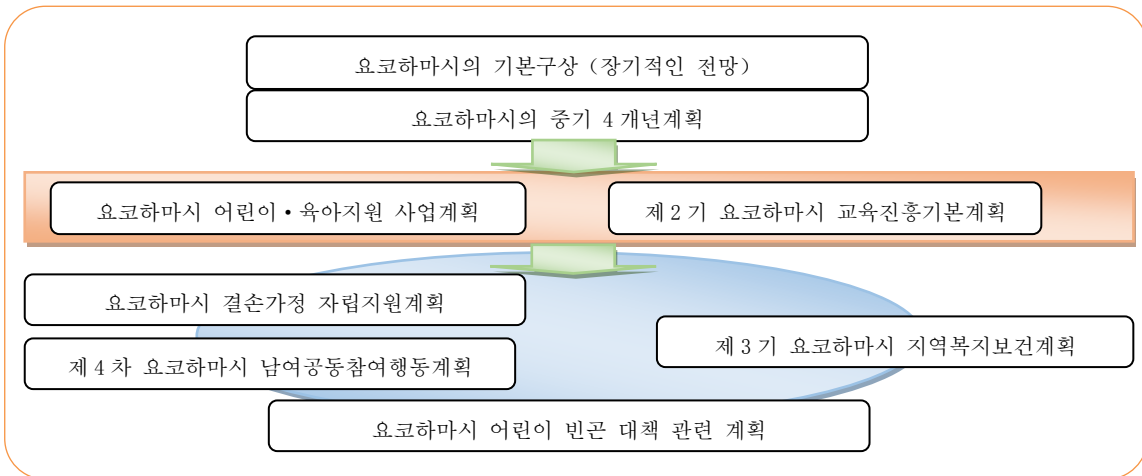
요코하마시는 국가에서 제정한 강령에 근거하여 어린이 빈곤 대책 관련 기본목표와 기본사로 및 2016 년부터 시행하는 5 년간의 조치 등을 융합하여 <<요코하마시 어린이 빈곤 대책 관련 계획>>을 제정했다.

1 계획이유

- 어린이는 요코하마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목적은 높은 실용성의 조치 및 그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체제를 추진하는 것에 있다. 이는 빈곤 어린이의 양육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가정의 경제상황 때문에 생기는 양육 환경의 차이거나 학습기회 및 취업 선택의 범위가 좁아져서 생기는 빈곤의 연쇄반응도 막기 위해서이다.

2 계획방향 및 기타 계획과의 관계

- 계획은 국가에서 제정한 강령에 따라 《요코하마시 중기 4 개년 계획 2014-2017》과 《요코하마시 어린이·육아 지지 사업계획》, 《제 2 기 요코하마시 교육진흥기본계획》 중의 프로젝트 배경과 기본사로 등에 근거하여 어린이 빈곤 대책에 유익한 활동 조치를 재차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요코하마시의 기본목표와 조치를 추진하는 사로와 미래 5 년간의 활동조치도 제기했다.



3 계획기간

- 5 년 (2016 년도 ~ 2020 년도)

4 計画の対象

- 【연령층】 출생전부터 대학교 졸업후의 자립지원까지 포함, 나이는 대략 25 살전까지 어린이·청소년 및 그 가정
- 【상황등】 ①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청소년 및 가정
②보호자의 질병·장애,결손가정 등, 쉽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어린이·청소년,가정 등

1 요코하마시의 어린이 빈곤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

- 요코하마시는 어린이 빈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집에서 키우고 있는 0 세부터 24 세 미만의 어린이·젊은이 600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시민 설문조사(이하 시민조사라고 칭함), 생활 보조금과 어린이 부양수당을 수령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하 대상조사라고 칭함),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린이와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총 17 개 기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자 의견 조사회(이하 지원자 의견 조사회라고 칭함)를 실행했다.

2 요코하마시 어린이 빈곤 실태

최저 생계 유지선이하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 가정의 평균 가처분소득이 국가평균치의 절반(최저 생계 유지선)보다 적은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의 비례를 어린이 빈곤율이라고 한다.
- 시민조사로부터 얻은 수치로 미루어 계산해 보면, 요코하마시에서 국가 최저 생계 유지선(2013 년 국민생활 기초조사)이하에 처한 어린이의 비례가 **7.7%**, 약 4 만 4 천명이 된다. 이 밖에 추산해본 결과, 요코하마시의 결손가정중 생활 수준이 국가 최저 생계 유지선이하에 처한 가정이 절반이나 된다. 요코하마시의 상황, 특히 결손가정의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 생활 현 상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시민조사중 “매우 힘들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8%**를 차지했고 결손가정 응답자의 **17.5%**를 차지했으며 최저 생계 유지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정이 응답자의 **20.9%**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상대조사중, “매우 힘들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7.4%**를 차지했다.
- 지난 일년간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음식을 구매할 능력이 가끔 없었던 가정이 시민 조사중 전체 응답자의 **4.6%**를 차지했고, 결손가정 응답자의 **16.6%**를 차지했으며, 최저 생계 유지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정의 **19.0%**를 차지했다.
- 지난 일년간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학용품과 교재를 구매할 능력이 가끔 없었던 가정이 시민조사중 전체 응답자의 **4.7%**를 차지했고, 결손가정 응답자의 **19.2%**를 차지했으며, 최저 생계 유지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정의 **21.6%**를 차지했다.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쉽게 생활난에 빠질 수 있는 어린이·가정

- 국가 강령중의 어린이 빈곤 대책에 의하면, 사회보장이 필요한 어린이, 생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정의 어린이 및 결손가정 어린이를 응당 “지원수요의 긴급도가 비교적 높은 어린이”, “우선 순위로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 **사회화 양육이 필요한 어린이** : 2014 년말까지,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학대를 받는 어린이 등 가정에서 생활하기 힘들어 요코하마시의 사회화양육(영아원 혹은 어린이 양육시설에 들어간 어린이, 양부모님한테 맡겨진 어린이)에 맡겨진 어린이가 880 명이 되는데 이는 요코하마시의 만 18 세 어린이의 0.15%쯤 차지한다. 요코하마시가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 학대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 년 1 년만해도 1000 건이나 넘는다. 파악한 어린이 학대사건중, 20%의 어린이가 사회화양육에 의지해서 생활하고 있다.

- **생활 보조금을 받는 가정의 어린이** : 요코하마시에서 생활 보조금을 받는 가정중에, 18 세미만의 어린이 수가 증가의 추세를 보였다. 2014 년 7 월에 약 1 만명인데 이는 18 세 미만인 어린이의 2%쯤 차지한다. 생활 보조금을 받는 모자 가정 세대수는 지난 20 년간 3.7 배쯤 증가하여 2014 년말에 4000 세대쯤 달한다.
- **결손가정의 어린이**: 2013 년 요코하마시의 어린이 수당을 받은 어린이 수가 3 만 1000 명에 달했는데 이는 18 세미만 어린이의 5%쯤 차지한다.

어린이·가정의 과제와 어린이 빈곤

- 요코하마시에서 실행한 지원자 의견 조사회와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운 실태를 밝혔다.
 - ◆ 의견 조사회와 설문조사에서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보호자가 자신의 부모 혹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학대 혹은 폭력행위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도 흔히 생기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중 일부 보호자는 지원자를 포함한 타인간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려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황에 처한 고로 어린이에 대한 지원이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 ◆ 어린이 상담소에서는 어린이 학대 등 문제가 연루되는 가정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비교적 많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린이의 신체적인 학대에 초점을 맞추는 외에 알맞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정상 등교를 시키지 않는 등 늘 영유아를 집에 남겨두고 홀로 외출하는 등 어린이를 소홀히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도 늘이고 있다.
 - ◆ 시민 설문조사중, 어린이가 학교 등 기구에서의 전체적인 학습상황에 답한 6~17 살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우 낙후하다” 혹은 “비교적 낙후하다”라고 답했는데 이는 설문조사에 참가한 전체 시민의 **9.7%**, 결손가정의 **24.2%**, 최저 생계 유지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정의 **26.4%**를 차지했다.
 - ◆ 시민 설문조사중 “무단 결석한 적이 있다” 혹은 “지금 무단결석 중이다”라고 답한 어린이·청소년이 전체시민의 **3.8%**, 결손가정의 **9.6%**, 최저 생계 유지선에 도달하지 못한 가정의 **10.8%**를 차지했다.
 - ◆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어린이가 진학 혹은 학업을 중퇴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있다” 혹은 “지금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그럴것 같다”라고 답한 총 비례수가 전체시민의 **20.7%**, 결손가정의 **56.5%**, 최저 생계 유지선에 도달하지 못한 가정의 **49.6%**를 차지했다.
- 요코하마시의 조사 결과에 의해 어린이 빈곤 뒤에 존재하는, 어린이와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운 상황을 정리한 결과, 그중에 일종 “세대간 연쇄”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보호자가 처한 어려움은 어린이의 양육에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상황은 어린이가 부모한테서 대물림받게 된다는 것이다. 어린이가 처한 어려움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는 조치도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연쇄를 잘라내는 이 관점도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 빈곤과 병존하는 어린이·가정과제

보호자	어린이·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의 성장경력·DV 경력 ● 보호자의 장애와 건강문제 ● 보호자의 사회적고립 ● 보호자의 학력 ● 보호자가 고정직업이 없는것·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를 소홀히 대하는 것을 포함한 학대, 기본생활습관의 혼란 ● 어린이의 장애와 건강문제 ● 어린이의 “외로움”실태 ● 어린이의 저학력·뒤쳐진 공부 ● 어린이 무단결석 ● 어린이 학력·학업중단 ● 어린이가 고정직업이 없는것 · 무직,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는것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서 찾고있는 어린이 지원

- 경제적인 문제에 처한 보호자한테 아이에 대한 걱정거리를 물어봤을 때, 60%가 “어린이의 교육경비가 걱정된다”고 답했고, 50%가 “어린이의 진학과 시험을 걱정한다”고 답했다.
- 대상자의 설문조사중, 어린이한테 가장 좋은 지원이 무엇인가고 물어봤을 때, 60%이상이 “생활 혹은 취학면에 대한 경제적인 보조”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30%의 사람이 “저렴한 방세를 지불하는 거처(숙사 혹은 기숙사)”로 답하면서 경제면에서의 지원을 찾고 있었다.

- 빈곤 상태에 처한 어린이·청소년, 가정이 직면하는 복잡한 종합적인 과제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시가 힘써야 할 어린이 빈곤 대책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지원과 접목되지 못한 어린이·청소년, 가정에 대한 관심

(1) 발견·접목·관심

- 사회적 고립에 처하여 지원제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러 각도로부터 제도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청소년, 가정의 상황을 다시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지와 관심을 접목시켜야 한다.

(2) 관심과 지원대상의 체제구축

- 어린이와 보호자의 속심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배경을 발견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걱정거리와 어려움에 지원을 제공해준다.

2 영유아시기 어린이 심신건강의 유지, 자아긍정감과 기본자신감의 양성

- 어린이의 심신건강과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습관의 양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아긍정감과 기본적인 자신감을 배양하여 어린이의 양육과 성장을 지지해야 한다.
- 영유아시기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우선으로 하는 특정 보육자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의존감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정서와 자아에 대한 긍정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습관 키우기, 학령기 후 학습 습관의 기초 다지기 및 학습욕망을 양성하고 과제나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적인 기초의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3 학습 실력 보장과 교육 및 복지의 협력

(1)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의 학습실력 보장

-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교와 관련기구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어린이 학습실력의 보장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교육과 복지의 힘을 이용한 어린이·학생지원

- 어린이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보호자의 취업, 질병, 장애 등 부양환경에 대한 과제는, 학교한테만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때문에 전문적인 복지와 의료 서비스도 필요하다. 학교·구청·어린이문제 상담소 등 관련 기구는 협력을 강화하여 끊임없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고등학교 진학에 직면한 학습지원

- 현재 생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요코하마시는 각 구에 “밀착형 학습지원 프로젝트”를 전개함으로써 그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어린이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할 수가 없다. 때문에 접수 범위를 늘리고 시행장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중학교 3학년생을 중심으로 한 지원 프로젝트 이용자 중,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욱 이른 단계에서 학습지원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4) 고등학교 진학후의 학습지원과 지원망의 강화

- 현재 요코하마시는 이미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계속하여 진학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력갱생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구는 학교와의 협력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계속하여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함으로써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수준평가지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4 여러 성인들과의 교류

- 어린이 지원활동이 관련되는 활동에서, 아이들은 직업과 앞으로 닥쳐올 자립에 관한 정보 및 구체적인 인식을 숙달해야 한다. 이 목표에 필요되는 필요과정과 노력해야 할 부분을 숙달하기 위해, 아이들은 또 주변의 모범성년과 교류하는 습관을 양성해야 한다. 학습지원 활동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요점이 비교적 돋보인다.

5 결손가정 보호자의 자립지원과 결손가정 어린이에 대한 지원

- 쉽게 어려움에 빠지는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이러한 가정이 현재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정신적인 관심을 포함한 전면적인 생활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일과 육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결손가정이 이용하기 쉬운 육아 지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6 사회화양육에 맡겨진 어린이 해결방법

(1) 양육 기구를 떠난 아이의 자립지원

- 어린이가 양육 기구를 떠난 후, 자립적인 생활기초를 지탱할 수 있게끔 안정된 거처를 확보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취직할 수 있는 상담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나아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둔 다음 지원점의 장소와 생존할 수 있는 거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2) 충분한 진학지원

- 사회화양육이 필요한 어린이가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마지못해 대학을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등 자신이 희망하는 인생계획을 포기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과 전사회적으로 함께 지지해주는 열풍을 강화해야 한다.

7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청소년 자립지원기구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상담과 취업훈련활동 등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을 보살핌으로써 그들이 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건설을 구축해야 한다.
- 지역사회 협력자·지원자의 인수를 전력으로 늘리며 지금까지 지원기구와 연결할 수 없었던 청소년을 지원과 접목시킴으로써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받게 하는 조치이다.

8 임신·분만기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빈곤 대책

- 임신·분만기에 처한 모자한테 모자보건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육아에 대한 불안함과 어린이 학대를 최대한 일찍이 없앨수 있는 동시에 어린이 빈곤을 최대한 일찍 발견하여 관심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9 지속적인 지원과 개인정보의 공유

- 지속적인 지원을 전개하기 위해, 우리는 민생·어린이 위원, 주임어린이 위원과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대책지역협상회”등 이미 현존하고 있는 조직과 협력해야 한다. 동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기구간의 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1 요코하마시 어린이 빈곤 대책의 기본목표·기본사로·계획체계

- 1 어린이 빈곤 대책에 힘쓰는 시점에서, 요코하마시가 제정한 5 개년 계획기간의 기본목표, 조치의 추진과 기본사로 및 계획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4장 요코하마시의 어린이 빈곤 대책

기본목표

요코하마의 어린이·청소년이 미래에서 자아우세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풍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개척하도록 배양하며 함께 따뜻한 사회를 창조하는 능력을 지닌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정의 경제상황에 제한받지 않고 교육·보육의 기회와 필요한 학력, 흔들림 없는 의지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 어린이·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나, 자립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조치를 추진하는 기본사로

어린이는 요코하마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 그들의 양육과 성장을 관심하는 동시에 가정의 경제상황 때문에 양육환경의 차이가 생기는 것, 혹은 취학기회 및 취업기회의 범위가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빈곤 연쇄반응을 막기 위해 나라와 현의 임무 분담 기초에서 어린이·청소년과 가정의 여러 많은 장소에서 직접 관련되는 기본 자치체로써 높은 실효성이 있는 조치를 추진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육성·성장”과 “교육의 기회”의 환경창조를 보장

“지속적인 지지”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체제의 구축

인재 육성의 시점과 지역사회와 관련된 구상

계획의 체계

어린이 빈곤 대책의 기초

어린이가 풍족하게 성장하는 교육, 보육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

조치의 기동

조치 1

발견·접목·관심

- 1 모자보건·지역육아를 지지하는 조치
- 2 학교와 구청 등과의 협력
- 3 종합성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정책 추진
- 4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자립지원 제공

조치 2

어린이의 육성·성장에 관심

- 1 어린이의 육성·성장에 대한 보장
- 2 결손가정 등 어려움에 직면한 어린이에 대한 지원

조치 3

빈곤의 연쇄를 잘라내기

- 1 학습지원
- 2 진학지원·계속 진학에 대한 지원

조치 4

어려움에 직면한 청소년의 능력배양

- 1 어려움에 직면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취업을 지지하는 체제
- 2 어려움에 직면한 청소년의 자립환경을 정돈

조치 5

생활기반을 든든히 다지다

- 1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는 현금보조금
- 2 보호자의 취업 촉진
- 3 육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2 계획의 진행 속도에 대한 파악

- 어린이의 성장기와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청소년·결손가정 등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하여, 그것에 따른 목표치를 각각 설정함으로써 계획의 추진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 계획한 전체적인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린이 빈곤 상태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어린이, 청소년의 자립기초를 돕고 있었는지 여부, 이 두가지로 계획의 추진상황을 판단한다.

대상	목표	최근 현황치	목표치(2020년도)
임신기	서면으로 보고된 임신부와 면담을 진행한 비례	92.3% (2014년)	95.0%(※1)이상
취학전	탁아소 진입 대상자수	8명 (2015년 4월)	0인(※1)
취학전□ 초등학생	유아기 보육·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맞물려질 수 있는 교수계획의 시행율을 확보	53.4% (2014년)	65%(※1)이상
초□중학생	“자신의 우점”을 대담한 어린이 비례	초등학생 : 74.2% 중학생 : 64.2% (2014년)	초등학생 : 75.0% (※2)이상 중학생 : 65.0%(※2)이상
중학생	미래의 꿈과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비례	69.8% (2014년)	75.0%(※2)이상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밀착형 공부 등 지원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어린이 수	488명 (2014년)	1,200명
고등학생	시립 고등학교의 계속 취학율 ※3	93.1% (2014년)	95.0%이상
	시립고등학교 졸업시 향후 계획(진학/취업) ※4	97.9% (2014년)	99.0%이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청소년 자립을 지지하는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면에서 어느정도 개선된 인수	1,082명 (2014년)	1,500명(※1)이상
보호자	결손가정 등 자립지원 기구를 이용한 집단중 취업자 인수	303명 (2014년)	1,900명(※1)이상 (2014년~7년 누적)

※1 요코하마시 어린이□육아 지지사업 계획의 목표치 (2019년도)

※2 제2기 요코하마시 교육진흥기본 계획의 목표치 (2018년도)

※3 계속 취학율이 졸업생 인수에서 입학생 인수를 나누어 얻은 수치이다.

※4 향후 계획의 결정율은 향후 계획의 결정자 인수에서 졸업생 인수를 나누어 얻은 수치이다.

1 어린이를 풍요롭게 성장하게 하는 교육, 보육작업의 추진과 지지

- 취학전의 양성과 성장은 성인이 된 후의 활동과 생활방식에 기반을 닦아줄 수 있다. 요코하마시는 때 어린이의 발전상황에 따른 취학전부터 시작된 성장누적을 결합하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어린이의 성장과 학습의 연속성·일관적인 교육·보육에 대한 보장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요코하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코하마 교육 취지는 어린이가 “지”(튼튼한 학력), “덕”(넉넉한 마음), “체”(건강한 몸과 정신), “공”(공덕심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의식), “개”(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열린 마음)를 드러내는 능력을 장악하는데 있다.

주요한 활동조치	개요
영유아기의 교육·보육의 보장	“어린이·육아 지원 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검정된 어린이집, 유아원, 탁아소, 소규모의 보육, 방문형 보육사업 등 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획에 따라 유아원 등 유아교육과 영유아기에서 보육이 필요한 어린이의 보육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시설 등에서 생기는 사용비(보육비)는 생활 보조금을 받는 가정과 납세 가정 등 저소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힘쓸 것이다.
사립유치원 입학 장려 보조금	사립학교의 지원을 받으며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아한테는 가정의 수입상황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입학비와 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 보조금을 받는 가정과 비 납세가정 등 저수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영아기·유아기·초등학교의 협력·연결	어린이의 장기적인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성장과 학습의 “연속성·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요코하마시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순조롭게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맞물릴 수 있는 계획을 정리함으로써 어린이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마다 자립할 수 있는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해 힘을 쓰다	각 학교에서는 “학력 제고 행동 계획”을 제작하여, 학력등급에 따른 교학방식의 개선에 힘쓰는 동시에 개별적인 지도와 숙련도에 따른 지도 등을 통해 매 어린이한테 따른 지도방법과 지도체제에 공을 들여 기초학력을 높여야 한다.
어린이 사회능력의 제고	어린이의 자립성과 교우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및 스스로 단체활동에 참가하는 자질과 능력을 키운다.
자아유용감과 자아긍정감의 학급과 학교	학교는 모든 어린이한테 적용되는 “어린이 사회능력 요코하마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사람마다 모두 참여감이 있는 강의방식을 창조하는 것을 중시하며 어린이가 서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돕는 집단을 구축한다.
지역과 협력하는 방과후 학습지원	학습 지원이 필요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습관의 양성과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전에 76개 학교에 지역과 협력하는 학습지원인 “방과후 학습장소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단계와 결합하는 직업교육의 추진	노동의 의미와 그것의 진귀함을 알고 있고, 미래에 꿈과 희망과 목표로 가득찬 어린이를 배양하기 위해 중소학교에서 서로 협력하여 직업교육에 힘쓴다.
진학 지원의 조치	무단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는 어린이가 자아유용감과 자아긍정감을 키울수 있는 학급과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무단결석하는 어린이와 학생이 사회에서 자립하여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실한 친구의 방문, 진실한 공간, 진실한 방 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보호자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학교중 식교육(음식습관의 배양교육)에 대한 추진	학교에서 추진하는 식교육을 통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어린이와 학생을 육성시키고 평생 이어지는 교양의 건설 및 건전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넉넉한 인성을 키울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가 빈곤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다	빈곤 상태에 처한 어린이의 생활 상황, 어린이의 빈곤이 어린이의 건강, 학력,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및 학교가 어린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각종 상황에서 교직원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2 5대 핵심 조치

조치 1 발견·접목·관심

조치의 방침

- 임신기부터 학령기, 청소년기에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 청소년, 가정과 보육원 유치원, 학교, 지역, 구청 등 각종 일상에서의 접촉점과 왕래중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관련기구의 시스템을 통해 그들이 지원과 접촉되도록 한다.
- 지역마다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청소년, 가정에 접근하며 관심을 가지면서 고립을 막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주요 조치	대강
1 모자보건 육아지원조치	<p>【임신기부터 육아기의 상담지원】 임신 신고, 모자건강수첩의 교부, 임신검진, 학부모교실, 임신부 수행방문, 신생아·영유아 수행방문 지도, 영유아 건강검진 등 모자 보건 조치를 추진한다. 동시에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기구와 육아지원기구 및 관련인원과의 협력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상담지원을 제공한다. 이밖에 “임신 SOS 요코하마” (★) 를 설립하여 원치 않은 임신 등 이유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임신부가 임신초기부터 충분한 상담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p> <p>【지역육아지원 거점의 사용자 지원사업의 실시】 각 지역의 지역육아 지원 거점에서는 전임 요원이 “요코하마 육아 파트너”에 정보, 상담, 지원, 건의를 제공하여 육아가정의 개별적인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다양화적인 교육·보육시설과 지역 어린이·육아 지원을 순조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p>
2 학교와 구청 등의 협력	<p>【구청 학령기에 상응되는 창구통일】 학령기의 유수가정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는 학령기 상응 창구는 구청 어린이 가정 지원수업으로 통일하여 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끊임없는 지원을 시행한다.</p> <p>【학교의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및 어린이 지원 전임교사 (★) □학생지도 전임교사의 배치】 왕따와 무단결석 등과 같은 문제의 예방과 되도록 빨리 해결하기 위해, 모든 소학교에 어린이 지원 전임교사를 배치하는것, 모든 중학교에 학생 지도 전임교사를 배치하는 것과 전문 심리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 어린이, 학생 지원체제를 강화한다.</p> <p>【고등학교 계속 진학, 미래 계획 (진학/취업) 을 선택하는 등에 대한 지원】 모든 시립 고등학교에 캠퍼스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지원을 제공한다. “진학 지도 고문”을 파견하는 것과 산업고문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취업 관련 지원상담 등 직업상담을 제공하고 교직원에게 학생에 대한 지도를 결합하여 계속 학습과 자립 지원을 진행한다.</p>
3 어린이 학대를 방지하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p>【어린이 학대를 방지하는 홍보활동의 지역적 협력사업】 어린이 학대를 방지하는 선전·홍보와 어린이 상담소·학교·경찰 등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체제를 정돈·보충한다.인재를 배양하고 조직성적인 대응을 강화시킨다. 지원조치를 충분히 하며 어린이 학대를 방지하는 지역망을 구축하는 등 어린이 학대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해결한다.</p> <p>【어린이 상담소 등 상담·지원체제의 강화】 요코하마시는 복잡하고 심각한 어린이 학대 등 문제를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도로 전문적인 직원을 육성하여 끊임없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 및 통지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어린이 학대문제를 대처할 때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침》에 근거하여 요코하마시는 구청(복지보건센터)을 통해 학대문제를 일찍 발견하고 문제가 재차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어린이 상담소에 경찰관 (OB) 을 배치하여 협력과 상담·지원 체제를 강화한다.</p> <p>【유치원 이용의 감독관리를 강화】 요코하마시는 어린이 상담소, 구청 등 관련기구와 협력하는 동시에 학대정도가 임시 보호조치를 받을 만한 학대 어린이에 부합되지 않을때, 학대문제의 방지와 문제가 악화되거나 그것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어린이를 유치원에 수용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어린이가 정성어린 보살핌이 필요할 경우, 보육원을 더 배치하여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린이 수용체제를 건립해야 한다.</p>
4 자립지원 집단에 대한 지원	<p>【구청내 관련부문 및 근무부서간의 협력강화】 생활형편이 어려운 집단에 대한 자립지원의 실행핵심----자립상담지원근무를 할 시, 요코하마시는 각 지역에 자립상담지원인원을 배치하여 전반적인 상담·지원에 대상하는 지역정부내 관련 부문 및 근무부서간의 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다.</p> <p>【현지 상담지원기구의 시스템구축 및 연결을 통한 외주형 자립 상담지원작업의 촉진】 학교·유치원을 선두로 한, 지역 사회 사랑 광장 및 민생위원을 포함한, 일상에서 접촉할 수 없는 어린이·청소년·가정의 관련기구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주기능을 가강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생활이 어려운 집단한테적합한 지원을 제공한다.</p>

※★표는 요코하마시만 갖고 있는 사업·조치이다.

조치의 방침

-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한테 고품질의 영유아기 교육·보육을 제공하고, 어린이 및 가정의 어린이 보육작업을 지원하여 어린이가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심리와 자신에 대한 긍정감을 키울수 있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
- 요코하마시는 학령기 어린이가 방과후에 모이는 장소 및 청소년이 현지에서 모이는 장소를 다양하게 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한다.
- 결손가정의 생활면 및 학습면 등 개별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 발육·성장을 지켜주는 동시에 고정된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키우도록 하여 학령기이후의 학습 습관의 양성에 기초를 다질수 있도록 한다.

조치 구분	대강
1 영유아·초·중·고등학교의 교육·보육·학습·생활 면 지원	<p>【영유아시기의 교육·보육의 보장(이어서)】“어린이·육아 지원 새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검정된 어린이집, 유아원, 탁아소, 소규모의 보육, 방문형 보육사업 등 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획에 따라 유아원 등 유아교육과 영유아기에서 보육이 필요한 어린이의 보육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시설 등에서 생기는 사용비(보육비)는 생활 보조금을 받는 가정과 비납세 가정 등 저소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힘쓸 것이다.</p> <p>【사립유치원 입학 장려 보조금 (이어서)】 사립학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아한테는 가정의 수입상황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입학비와 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 보조금을 받는 가정과 비 납세가정 등 저수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p> <p>【영아기·유아기·초등학교의 협력·접목 (이어서)】 어린이의 장기적인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성장과 학습의 “연속성·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때문에 요코하마시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순조롭게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맞물릴 수 있는 계획을 정리하여 어린이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학령기후의 어린이 집결장소】 방과후 Kids Club 혹은 방과후 어린이 클럽은 어린이의 성장단계에 따라 그들이 적극적이며 주동적으로 생활과 게임을 진행하도록 인도함으로써 학교, 가정, 현지 등 관련 협력을 실현하여 여러 종류의 체험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현지 활동기지 (★)”를 이용하면 중학생·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이 부담 없이, 편하게 모임을 가질수 있어 친구거나 서로 다른 연령층의 사람과 교류할 수 있어 사회참여 계획을 체험할 수 있다. 요코하마시는 이러한 거점과 민간빌딩내부의 장소를 활용하고 있다.앞으로 요코하마시는 학교·구청·가정·신변의 모임장소·관련 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현지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풍부히 할것이다. 동시에 청소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위험을 되도록 빨리 발견하여 그들한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p>
2 결손가정 아동·장애아동의 생활·학습·교육·보육 면 지원	<p>【결손가정 어린이 생활·학습에 대한 지원】 결손가정의 어린이에 대하여, 저녁식사를 포함한 초저녁 이후의 생활지원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대부분 시간동안 홀로 집에 있는 결손가정 어린이가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키우게 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한다. 우리는 또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여 앞으로의 결손가정 어린이 지원에 대한 대책을 연구할 것이다.</p> <p>【밀착형 생활지원 프로젝트】 요코하마시는 밀착형 생활지원 프로젝트를 강화하여 생활기능과 학습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육환경면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가정중의 중·소학생들이 맘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양성하여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넓혀주고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숙달하게 한다.</p> <p>【결손가정 등 가정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프로젝트】 가사·육아 면에 임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및 과부에 초점을 맞추어 요코하마시는 가정생활 지원인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할 것이다. 이밖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예하면 보호자가 일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비교적 늦을 경우, 요코하마시는 정기적으로 가정생활 지원인원을 파견하여 어린이의 생활과 육아업무를 지원할 것이다.</p> <p>【고등학교졸업학력수준인정시험합격지원 프로젝트】 아이들이 더욱 좋은 조건에서 취업 혹은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한다.예하면 당사자 본인이 고등학교졸업학력수준인정시험 합격지원 강화활동에 참가할 때 요코하마시는 부분적인 수강비용을 지불할 것이다.</p> <p>【결손가정 등 가정 의료비 보조】 건강보험에 참가한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결손가정에서 대하여, 예하면 당사자가 의료기구에서 진찰을 받을때, 요코하마시는 부분적인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부담할 것이다.</p> <p>【입학지원·사립학교 등 학교에 진학하는 어린이에 대한 장려제도】 경제적인 원인으로 시립초등학교·중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어린 학생한테는 요코하마시가 진학지원의 형식으로 보호자한테 학용품비, 수학여행비, 식비 등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한다. 요코하마시는 이러한 어린 학생한테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순조롭게 신청수속을 마치도록 도울 것이다.사립학교 등 학교에 진학한 어린이에 대한 장려는 (★), 요코하마시에 거주하고 있고, 국립학교 등 비시립학교의 국립학교 혹은 요코하마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초등학교·중학교·중고등학교 (전기수업과정) 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및 일본적이 아니지만 요코하마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초등부·중등부) 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요코하마시는 학용품비, 수학여행비,식비 등 면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p>

※★표는 요코하마시만 갖고 있는 사업·조치이다.

조치 3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버리다

조치의 방침

-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 우리는 또 현지의 작업 등 세밀하고 빈틈없는 학습지원을 통해 어린이들의 학력 제고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가 미래에 사회와 경제상의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생활면에 어려움이 있는 중학생을 대하여 요코하마시는 고등학교 진학에 관련한 학습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이 사회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사회적 상식 등을 장악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직업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 요코하마시는 학교, 구청, 만간의 상담 지원 및 경제지원을 통해 어린이가 계속 취학 및 자신이 원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준다.

조치	주요	대강
1 학습지원		<p>【밀착형 학습지원 프로젝트】 생활 보조금을 받는 가정의 어린이에 관하여, 요코하마시는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학습지원을 강화하며 그들을 도와 학습욕망과 학력을 제고시켜줌으로써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실현하여 빈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준다.</p> <p>【결손가정의 어린이 생활·학습에 대한 지원(이어서)】 결손가정의 어린이에 대하여, 저녁식사를 포함한 초·중·고 이후의 생활지원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대부분 시간에 홀로 집에 있는 결손가정중의 어린이가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키우도록 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게 한다. 우리는 또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여 앞으로의 결손가정의 어린이 지원에 대한 대책을 연구할 것이다.</p>
		<p>【피보호자 자립지원 프로젝트(교육지원 전문요원)】 구청의 생활지원과에 교육지원 담당자를 배치하여 생활보조금을 받는 가정의 중학생 및 양육자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취학관련 각종 제도와 생활보장제도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의 진학념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각종 상담기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진학, 취학 등 지원도 진행한다. 또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계속 학습지원을 실시한다.</p> <p>【고등학교 장학비용】 경제적 이유 혹은 가정원인으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한테 갓지 않아도 되는 고등학교 장학금을 제공하거나 때에 맞춰 고등학교 교과서를 나누어준다.</p>
2 진학지원·계속 학습지원		

어린이 빈곤 대책과 연결되는 지역과 기업의 조치

~ 어린이 식당에 관한 조치 ~

요코하마시의 관련원이 의견조사회에서, 어린이 음식섭취 면에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 저녁식사는 간식 혹은 빵이나 가벼운 식사로 끼니를 때우는 것, 부모님의 일때문에 홀로 식사를 하는 등이다.

뿐만 아니라, 요코하마시의 설문조사에서 평소에 어린이 홀로 식사하는 상황에 대해 결손가정중 “늘 그렇다”, “때로 그렇다”라고 답한 비례수가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간, “어린이 식당”은 가정과 학교외에 지역에 어린이가 있을 곳을 추가하였다. 이는 온 지역이 함께 어린이를 관심하고 어린이 육성 조치를 열정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크게 주목받았다. “어린이 식당”은 어린이 혼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며 무료 혹은 저가로 따끈따끈한 수제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 식당은 어린이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게 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른과 함께 밥을 짓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혼밥”하는 등 어린이의 음식환경을 개선할 날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다. 이 외에 어린이와 가까이 지냄으로써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주면서 학습지원 등을 제공하는 어린이와 지역간 사람들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조치도 적지 않다.

“어린이 식당”은 NPO 법인, 시민단체, 지원자가 주도하는 것인데 전국 각지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2015년, “어린이 식당 조직”이라는 전국성적인 조직망을 설립함으로써 민간활동형식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식당 운영주체의 소통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 보장제도 등에 대한 안전망 계획외에 “어린이 식당”조치가 대표하는 지역사회관심과 어린이 양육조치를 지지하는 것은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한테 거둬들이는 지원을 준비해 놓는 것으로써 향후의 보급으로도 기대해볼 만하다.

교육지원 담당자

생활 보조금을 받는 가정의 어린이와 학생이 그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미래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장악하여 사회와 경제상의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 사회복지사와 함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진학지원과 취학 지원에 집중시켜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본인과 보호자와 함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진학제도와 밀착형 학습지원 등 활동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 면담과 가정방문 등 형식으로 진학을 지원하는 준비작업을 진행한다. 무단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외에 학교 등 기타 상담기구와 협력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수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이 순조롭게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치의 방침

- 지역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건설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와 지금껏 접촉하지 못한 청소년과 지원작업을 연결한다.
- 전업기구의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초기상담부터 시작하는 단계성 지원을 강화하는것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촉진한다.
- 전업기구와 지역이 협력하여 필요할 경우 따라 청소년이 자립한 후의 지원활동 등에 힘쓰으로써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이 지역사회로부터 오는 관심을 누리며 스스로 생활해 나갈수 있는 환경을 건설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재 및 미래생활의 안정성을 모색하게 한다.

조치 주요	대강
1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의 상담 취업지원체제	<p>【청소년 상담센터의 상담·지원사업】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종합상담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지속적인 지원인 동시에 청소년을 지원하는 인재 혹은 단체의 육성에 힘쓴다.</p> <p>【지역청년광장사업 (★)】 청소년 상담센터 및 청소년지원지점과 협력하여 집에서 나오지 않는 등 각종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머물 곳을 제공함으로써 첫상담 등 사회체험·취업체험 등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지원을 제공한다.</p> <p>【청소년 지원지점 사업】 청소년 지원지점에서, 노동과 자립감에 대한 불안함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과 보호자와의 단독적인 상담을 통해, 다시 공부하는 것을 포함한 취업 연구토론회, 단기적인 취업체험 등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청소년 지원지점 사용자중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취업자격을 취득하는 등 관련지원을 제공한다. 이밖에 취업이 어려운 학생이 비교적 많은 고등학교는 학교와 협력한다.청소년 지원지점은 또 정기적으로 출장상담 등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학생의 직업 의식과 진로 계획이 형성되게 한다.</p> <p>【요코하마형 청소년 자립속에 대한 지원】 장기적인 무단결석, 집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에 처한 청소년은 단련을 통해 날마다 떨어지는 체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합숙훈련의 공동생활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생활리듬, 학습, 타인과 지내는 방식 등을 만들어 생활을 개선하는 지원이다. 이로써 청소년이 사회와 경제상의 자립을 추동한다.</p>
2 자립환경정립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의	<p>【복지시설 등을 떠난 후의 어린이 안치사업】 어린이 양육시설 등에 있는 어린이 및 시설을 떠난 어린이에 대해서는 취업과 진학을 위주로 한 전체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등을 떠난 후 바로 자립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 및 직장을 그만두고 퇴소한 인원에 대해서는 거처의 지원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한다.</p> <p>【시설 등을 떠난 후의 어린이에 대한 조사진행】 쉽게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생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확률이 비교적 높은 어린이 양육시설 등을 떠난 퇴소인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퇴소인원의 생활과 취업상황, 퇴소후 직면하는 각종 문제, 자립지원 과제 등을 파악하여 당사자와 사용자의 의견에 근거하여 시설 등 시행하고 있는 퇴소전후의 자립지원조치와 2012년부터 요코하마시가 시행한 안치사업 효과를 재차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지원에 응용해야 한다.</p> <p>【파트너 육성 및 파견에 대한 서포트 (지역청년광장사업) (★)】 보통시민과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이해하도록 육성할 뿐만 아니라 활동의 “서포트 파트너”를 도와 지역청년광장을 선두로 하는 지역청소년 지원활동의 파견등을 시행한다.</p> <p>※서포트 파트너 2015년에 시행한 “지역 지원시험 사업”을 통해 육성</p>

※★표는 요코하마시만 갖고 있는 사업·조치이다.

고등학교와 지원기구와의 협력

고등학교와 각종 기구, 단체 등과 협력하는 것은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근거하여 요코하마시만 갖고 있는 학생의 자립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청소년 지원지점도 지원기구중의 하나이다.

요코하마시는 청소년 지원지점을 운영 및 지지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고등학교와 청소년 지원지점 세 곳이 협력하여 경제적인면, 생활면, 취업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출장상담 등을 통해 지원활동을 한다. (2015년 현립과 시립 고등학교 총 16개 학교에서 협력을 진행.)

☆ 청소년 지원기구, 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조치의 구체적인 사례

- 청소년 지원지점의 정기적인 출장, 단독 면담을 지원
- NPO 법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몸 담글 곳.
- 대학생 혹은 교사선배의 지원자가 제공하는 재학습 지원

조치의 방침

- 현금보조 등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생활보장.
- 보호자에 대한 취업자격증 획득 혹은 취직활동에 대해 진행하는 지원방식으로 그들이 생활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

조치 주요	대강
1 생활기초를 요약하는	<p>【생활보장】 생활 빈곤자는 국가에서 제정한 기준이 규정한 빈곤정도에 근거하여 생활, 교육, 주택, 의료, 호리, 출산, 직업, 장애와 제사 이 8 가지 부조금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어린이 양육수당】 부모님의 이혼으로 부친 혹은 모친과 생활하며 성장한 가정 (결손가정 등) 은 양육수당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자립을 촉진하여 어린이 복지 등을 증진시킨다. 국가제도가 개혁함에 따라 2016 년 8 월부터 둘째 아이부터 가산수당을 증가함으로써 결손가정의 경제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p>
2 보호자의 취업촉진	<p>【피보호자 자립지원 프로젝트(취업지원사업)사업】 구의 생활지원과에 취업지원 담당자를 배치하여 취업가능한 생활 보조금을 받는 사람한테 구인 광고 혹은 hello work 를 통하여 구직 활동을 할 때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보호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동시에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생활 보조금을 받는 사람한테는 생활 훈련, 사회훈련과 직업체험 등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지원을 촉진하여 취업의지를 높인다. 이밖에 구청내에 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등을 대상으로 Hello Work 창구 (JOB SPOT) 를 설치하여 구와 Hello Work 가 하나로 되는 취업지원을 실시한다.</p> <p>【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지원사업 (자립 상담사업중의 취업지원)】 구의 생활지원과에 자립지원 담당자를 배치하여 생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상담지원을 실시한다. 상담자의 상황에 따라 자립계획을 작성하여 생활·사회훈련 등 취업에 필요한 준비지원과 JOB SPOT 등을 충분히 이용하는 취업지원을 제공한다.</p> <p>【모자·부자 가정의 자립지원 수당 사업 (자립지원 교육훈련 수당, 고등 직업훈련 촉진수당)】 결손가정 등의 보호자가 적합한 직장을 다니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술과 자격때문에 강좌에 참가할 때 생기는 수강료를 지불하는 것, 그들이 간호사 등 효과적으로 경제상의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연습하는 기간의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생활부담을 덜어주어 쉽게 자격을 얻게 한다. 동시에 양호한 조건이 마련된 취업과 이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당의 지불비례와 지불상한, 지불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결손가정의 보호자의 취업이 가져오는 안정된 생활의 지원을 가장한다.</p> <p>【모자·부자 등 취업·자립지원 센터 (결손지원 요코하마)】 결손가정의 종합성 창구를 위해, 관련기구와 협력하여 정보제공 혹은 결손가정간의 교류, 취업상담·강습회, 변호사 등의 전문상담 등 지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결손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를 충분히 이용하여 가정의 생계관리 등의 강습회와 생활관련상담, 학습지원 등을 실시하여 결손가정의 자립을 지원해아 한다.</p> <p>【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증시험 합격 돕기 프로젝트 (이어서)】 결손가정의 가장과 어린이가 다시 교육을 받아 구직 혹은 이직할 때 더욱 좋은 조건을 따내어 안정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러한 집단이 고등학교 조령·학력인증시험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받을 때, 우리는 부분적인 수강비용을 지불할 것이다.</p>
3 아이들의 경제적 지원하는	<p>【어린이 보조】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를 보살피는 인원한테 보조금을 발급한다.</p> <p>【소아의료보조】 국가는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취약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어린이 의료비의 부담을 30%에서부터 20%까지 줄였다. 요코하마시는 시민가정을 도와 양호한 어린이의 성장환경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학령기 어린이 의료비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p>

생활 빈곤자 지원체제

일본에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와 생활보호제도 두가지 제도가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민들이 실사 실업하거나 질병등에 걸렸어도 생활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비정식적인 고용이 더해지는 것과 가정구조의 변화때문에 일본의 사회구조가 끊임없이 변하여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보장체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2015 년 4 월부터 생활 빈곤자 자립지원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 집단이 생활보장에 진입되기 전의 빈곤상황에 대하여 지원하고, 그들의 취업 혹은 가정수입지출을 다시 계획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빈곤을 벗어나거나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한다. 요코하마시 모든 구의 구청 생활지원과에 모두 생활보호제도, 생활빈곤자 지원체제 관련상담의 종합창구가 설치되어 있어, 창구 책임자는 상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와 함께 토론하며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1 계획의 추진

계획추진시의 협력체제,추진체제

-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 혹은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의 섭렵범위가 비교적 많다. 이밖에도 현재 개별적인 어려움에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구와의 협력방식을 취했지만 지원기구가 각자의 직책 및 지원내용에 대한 상호 이해, 관련 인원들사이의 개인정보공유 등 협력면에서의 기초, 체제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 뿐만 아니라 어린이, 육아 지원면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유아기부터 어린이 성장의 전반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어린이 성장단계 및 개체적인 차이에 결부하여 포용성, 지속성이 있는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 때문에 지금껏 개별적인 어려움에 대해 지원을 제공해왔던 주체가 응당 연합되어야 하고, 나아가 기초를 든든히 하여 체제를 완전화함으로써 다중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계획을 추진할 때, 세세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지를 주체로 한 지원 조치와 민간 협력조치, 각 시민이 어린이 빈곤상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등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
- 예하면 지방에서는 식품 제공하는 등을 포함한 어린이가 있는 지역 및 고등학교 학습지원 등 신형 지원조치를 제공한다; 단체, 민간기업 등 새로운 지원주체 혹은 이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관, 단체와 현립, 시립고등학교 사이에 협력을 전개하는 등 조직방식; 방문 지원 등 지방에서 스스로 돕는 것, 기타 도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을 전개하며 요코하마시의 상황과 결부하여 연구하고 추진하는것도 매우 필요하다.
- 어린이 청소년국, 건강복지국, 교육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기관에서 청내 연락화의, 지원지 및 적극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를 진행하여 계획한 PDCA 순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인원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인재 육성의 지원

- 어린이 빈곤대책은 교육보육기구, 지방, 전문기구, 행정기관 등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협력하고 직권을 명확히 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는 생활속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린이,청년,가정을 관심하고 가까이 하며 지켜주고 상담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도와 지원자, 전문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등들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
- 비록 이미 교육보육에 종사하는 직원, 전문기구의 직원 및 지방의 인원에 대하여 각 종류의 인재배양을 실시하였지만 나아가 빈곤어린이에 대한 민감도, 지원기술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입장으로 출발하여 어린이, 청소년, 가정 등을 가까이 하는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 때문에 계획의 실시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빈곤 어린이의 현재 상태에 대한 공동한 인식, 지원 관련기구 등의 책임, 이용 가능한 제도 혹은 지방자원 등 정보의 조치를 종합할 것인가를 계속하여 연구함으로써 이것을 각 종류의 제도 혹은 연수활동에 도입할지를 생각하고 있다.
- 이밖에 각 지역에서도 계획의 실시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원기구 웹사이트를 건립할 것을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체계를 완전화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음으로써 지원대오의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도록 확보한다.

어린이 빈곤 관련 수치수집 및 조사의 시행

- 요코하마시는 이 계획을 제정하는 동시에 요코하마시의 빈곤 어린이 관련 수치를 전문적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동시에 현지 실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간 설문조사, 지원대상 설문조사, 지원인원의 직접적인 교류 등 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중, 요코하마시의 상황 및 구조 조치의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요코하마시어린이 빈곤 대책 관련 계획

2016년 3월

요코하마시어린이 청소년국 기획조정과

주소: 〒231-0017 요코하마시 나카구 미나토마치 1-1

전화 : 045-671-4281

FAX : 045-663-8061

이메일 : kd-kikaku@city.yokohama.jp ma.jp